

이재명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내란 종식·민생회복 최우선 강조
“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 없이”
정의로운 통합·유연한 실용 주창

▶ 관련기사 2·3·4·5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명령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의 시대정신인 ‘내란 극복’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의 모든 영역에서 영진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 삼아 협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대선 기간 국민과 약속한 TF 가동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도 제시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고 밝혔다. 대선 유세 중 여러 차례 밝힌 실용주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여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전략 산업, 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체와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 기자

알립니다

전남매일 제7기 CEO경제아카데미 ‘6강’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오는 9일 전남매일 제7기 CEO경제아카데미 6강 강사로 초청돼 ‘PF 및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경자 애널리스트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유틸리티 담당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조선 담당 애널리스트를 지냈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위원, 정보통신공제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강연주제: PF 및 주택시장 전망
 - ▶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오후 7시
 - ▶ 장 소: 골드클래스 본사 3층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1)
 - ▶ 강 사: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 ▶ 문 의: 062-720-1012 (전남매일 사업국)
- ※ 석식 장소: 강의 장소와 동일 (오후 6시부터 식사 가능)

M 전남매일

초대 총리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비서실장 강훈식·안보실장 위성락
경호처장 황인권·대변인 강유정



김민석

이종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경호처장에는 보성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총지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 새 정부 출발을 시작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 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에 대해 “4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통찰력이

매우 깊다”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인사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꿈도
청년들의 기회도
우리들의 미래도
다 함께 커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삼성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